

# “청소년 교육정책 약속, 1년 동안 잘 지키셨나요”

### 전남교육청, 청소년 교육정책 공약 이행 평가회



전남교육청은 전남청소년YMCA 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과 약속한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회를 26일 개최했다.

전남 학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평가회는 장석웅 교육감이 후보 시절 약속한 10대 공약에 대해 1년간의 추진 실적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자리였다.

장 교육감은 후보 시절 청소년 교육

정책 관련 공약으로 교육자치, 복지, 인권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를 제시했다. 교육자치 분야로는 △ 학교 내 학생 대표의 권한 확대 △ 청소년 진로체험 확대 △ 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 △ 학교 내 다문화 갈등 해소 △ 학급당 정원 수 축소 등 내세웠다. 인권 분야에서는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중·고등학교 교지나 복장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 청소년

년 전용 거점형 버스 지원 / 이동권 확보 △ 청소년증 홍보 및 다양한 청소년 할인 △ 무상교육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중 8건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학생의회 구성 운영, GMO 없는 친환경급식 확대,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학급당 학생수 점진적 축소, 노동인권 보호교육 추진, 편한교복 권장, 고교무상교육 실현 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다만, 복지 분야 공약인 청소년 전용 거점형 버스 지원, 청소년증 홍보 및 다양한 청소년 할인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정이 필요해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됐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자신들의 바람을 가감 없이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자치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단위학교 내 제대로 된 학생자치 실현, 학생의회 및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광주시교육청, 2019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 1224명 응시 863명 합격...합격률 70.51%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일 시행한 2019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의 합격자를 27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 합격률은 초졸 84.21%, 중졸 84.69%, 고졸 66.84%이며 전체 합격률은 70.51%다.

초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78명 중 57명이 응시해 48명이 합격했으며, 중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218명 중 196명이 응시하여 166명이 합격했다.

고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1132명 중 971명이 응시해 649명이 합격했다. 총 지원자는 1428명이며 전체 1224명이 응시해 총 합격자는 863명이다.

최고득점의 영에는 전과목 만점을 기록한 초졸 정모(남, 11세) 군 등 3명, 고졸 이도(남, 18세) 군 등 5명이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박모(여, 67세) 씨, 중졸 김모(남, 75세) 씨, 고졸 김모(남, 71세) 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김 모(남, 11

세) 군, 중졸 한 모(남, 11세) 군, 고졸 김 모(남, 12세) 군이다.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오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시교육청 본관 1층 고시관리실에서 교부한다.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은 합격자 발표 후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민원실,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합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9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합격증서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 순천효산고, ASEAN 직업교육 국제교류협력 아시아 품다



순천효산고(교장 최상경)는 동산정보산업고와 연합하여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학생 9명과 교사 6명으로 구성된 ASEAN 직업교육 협력사업단이 태국 푸켓에 위치한 PKVC(Phuket Vocation College)에서 현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리교육과 미용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ASEAN 직업교육 협력사업은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교육적 일환으로 교육부가 주최가 되어 아시안 국가 중 태국,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직업고교와 국내 직업고교를 상호 연결하여 교류협력시스템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신진화된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학교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참여하는 직업고교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길러줌으로써 해외 취업의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순천효산고는 10년 전부터 중국, 러시아, 대만,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해 온 노하우를 살려 이번엔 태국 푸켓 특성화고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조리·관광서비스 분야에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상경 교장은 향후 고교학점제 및 글로벌 현장학습과 연계하여 다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혀 순천효산고는 더욱 더 매력적인 직업교육의 명문학교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화순교육지원청,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초청 간담회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8월 말로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초청하여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준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8월 말 퇴직예정 교육공

무직원은 총 5명으로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3명,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1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평초등학교 이미경 조리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해야 학생들에게 좀 더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20여년간 근무했다”면서, “정년까지 무탈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최원식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학교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과 건강관리로 퇴직 이후 제2의 인생도 보람 있게 보내길 기원하며, 화순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전남YMCA협의회 업무협약



전남교육청이 전남YMCA협의회와 손을 잡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26일 오후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전남YMCA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와 각 지역별 YMCA 이사장 및 실무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 전남지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학교 민

주시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공동 개발 협력 △ 초·중·고등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및 토론회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강사 양성교육 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

전남YMCA는 주민자치와 지역의 공공성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민운동 단체로, 청소년들과 함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고흥교육지원청, 교육 활동보호 역량강화

고흥교육지원청은 26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 보호 책임관 및 실무 담당교원(80명)을 대상으로 '2019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단위학교 교원보호 예방활동 사후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보호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연수는 이나연(서울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를 강사로 교원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 연수로 진행됐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개정내용, 동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고흥=한윤섭 기자

## 보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책임교사 연수

### 학폭법 개정안 관련

보성교육지원청은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34명을 대상으로 보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3층)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주로 연수하였다.

이날 연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를 단위학

교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자체해결제도도 학교교육의 선도적 기능과 학교폭력 피·가해 측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1부에서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연수를, 2부에서는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는데, 강사 박관홍(웅정중학교 교사)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

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간, 또는 학부모간 멀어진 거리감을 한층 더 좁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하였다.

그리고, 2부 질의응답시간에서 교육부 김용준 연구사는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사안별 질의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대답하였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현재의 학교폭력 업무가 30% 정도 경감될 것으로 말하였다.

